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3년 7월 25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최규종 조선해양플랜트과장(02-2110-4691), 손용하 사무관(02-2110-5626)

해양플랜트, 설계인력 양성을 통해 고급일자리 늘린다

-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 해양플랜트 설계인력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김재홍 제1차관은 7.24(수), 한국기술센터(역삼동)에서 산·학·연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플랜트 설계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함

○ 동 간담회는 우리나라 주요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한 해양플랜트 분야의 핵심 현안으로 등장한 설계인력 부족문제와 양질의 고급 일자리 창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 산업 침체가 장기화한 가운데서도 우리 조선사들은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해양플랜트 분야로 다각화에 성공해 해양플랜트 건조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하지만 해양플랜트 수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으로 인해 추가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 Offloading: 부유식 원유생산설비) 1기의 설계시수(1인이 1시간 일하는 단위)는 100~120만단위로 일반상선(10~20만단위)에 비해 인력수요가 약 10배

<해양플랜트 설계 해외의존도·설계시수·설계기간>

구 분	일반상선	시추선	FPSO Topside(상부구조물)
해외 의존도	0%	20%	50%
설계시수(M·H)	10~20만	50~60만	100~120만
설계기간(개월)	8~12개월	16~20개월	24개월 이상

* 출처: 한국조선해양플랜트산업협회

○ 또한 생산설계를 제외한 개념설계, 기본설계 등 고부가가치 설계를 외국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해양플랜트 산업의 수익성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FPSO Top-Side(상부구조물)의 경우 개념설계, 기본설계 등을 위한 설계용역비가 1기당 400~900억원대 수준

< 제품별/프로젝트별 설계용역비 비중>

구 분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	프로젝트 3	프로젝트 4
Semi-Rig (반잠수식시추선)	설계용역비(억원)	110억원	90억원	70억원	40억원
	설계용역비 비율	30%	25%	20%	12%
FPSO Top-Side (상부구조물)	설계용역비(억원)	410억원	760억원	720억원	930억원
	설계용역비 비율	50%	45%	50%	55%

* 출처: 한국조선해양플랜트산업협회, 설계용역비 비율은 전체 설계비 대비 비중

□ 산업부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공동으로 "해양플랜트 인력 T/F"를 구성해 종합적인 인력양성 대책을 수립할 예정임

□ 이번 간담회는 보스턴컨설팅 이병남 대표의 "해양플랜트 세계시장 및 인력수급 동향", 산업연구원 홍성인 박사의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동향과 인력수급" 발표에 이어 참석자 토론 순으로 진행됨

○ 이병남 대표는 "해양플랜트 세계시장 및 인력수급 동향" 주제 발표에서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이 2011년 495억불에서 2015년 647억불로 연평균 7%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 인력부족 대책으로 글로벌 선도업체에 대한 인수합병(M&A) 및 합작사 설립, 체계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선도업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을 제안함

○ 홍성인 박사는 우리나라 해양플랜트 기술인력 수요가 연간 1,000여명씩 증가하고 있으나 고급인력 공급부족, 핵심인력의 지방근무 기피, 숙련인력의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 석·박사급 고급인력 공급확대, 조선·육상플랜트 등 연관분야 전문가 재교육, 재직자 대상 설계·엔지니어링 교육확대,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제안함

○ 참석자들은 설계인력 부족이 향후 해양플랜트 수주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김재홍 차관은 우리나라가 해양플랜트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설계·엔지니어링, 해양플랜트 서비스, 기자재기술력 등 우리의 취약점을 극복해야 하며,

○ 금번 간담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공동으로 “해양플랜트 인력T/F”를 구성해 종합적인 인력양성 대책을 수립할 예정임을 밝힘

□ 한편, 산업부는 해양플랜트 분야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플랜트 특성화대학(서울대, 인하대, 해양대), 엔지니어링특성화대학원, 조선·해양플랜트 재직자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참고 **해양플랜트 설계인력 양성 간담회 개요**

□ 개요

○ **목 적** :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플랜트 설계인력 양성방안

○ **일 시** : 7.24(수) 12:00~13:30

○ **장 소 :** 한국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해양플랜트 관련 산학연 전문가 15명 내외

○ EPCIC 업체: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 EPCI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Installation, Commissioning

○ 설계·서비스 및 기자재: TMS, 오션스페이스, 아라엔지니어링

○ 학계·연구계: 서울대, 포스텍, KAIST, 산업연구원, ETRI

○ 기타: 보스턴컨설팅, 조선해양플랜트협회

□ 세부 일정(안)

	일 정	비 고
12:00～12:05	차관님, 인사말씀	
12:05～12:15	세계 해양플랜트산업 동향 및 인력수급현황	보스턴컨설팅 (이병남대표)
12:15～12:25	국내 동향 및 설계인력 양성 방안	산업연구원 (홍성인박사)
12:25～13:25	참석자 토론	
13:25～13:30	차관님, 마무리말씀	

□ 참석자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EPCIC (4)	삼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박중흠
	현대중공업	전무	김정생
	대우조선	전무	엄항섭
	포스코플렌텍	고문	김장진
설계·서비스 (3)	TMS	사장	박노준
	오션스페이스	사장	정현
	아라엔지니어링	사장	유희종
학계(3)· 연구계(2)	서울대	교수	양영순
	포항공대	엔지니어링대학원	최한석
	KAIST	해양시스템공학	서유택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홍성인
	ETRI 산업IT융합연구단장	단장	손주찬
기타 (2)	보스턴 컨설팅	대표	이병남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서영주